

# 에너지 절약 “불교 안에 다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 ‘탈핵’ 주제 좌담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건은 우리에게 방사능 공포를 일깨워 주었고 핵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승, 박광서)는 6월 5일 랩플스테이 정보센터에서 박원순 시장을 초청 ‘탈핵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서울시 에너지를 절약해 원전 1기분의 에너지를 줄이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박 시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좌담회에는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법승 스님·박광서 교수, 종회의장 보선 스님,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등이 참석해 박 시장과 질의응답을 펼쳤다.



박원순 서울시장



법승 스님



박광서 교수

**질문(박광서):** 원전을 줄이자는 주장은 에너지 절약 차원인가 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박원순 시장:** 일본의 원전사태를 보면서 핵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느꼈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원전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

저렴한 클린에너지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파멸 위기에 이른다. 러시아 체르노빌 사태가 그렇지 않나? 바람이 불면 독일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선진국을 따라가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렇게 (원전이 자꾸 세워지게)되면 다시 100년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국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지붕이 텅텅 비어 있지 않나?

이번에 서울 시청 청사 옥상에 4월부터 벌판을 키워 얼마전 40t의 꿀을 수확했다. 도시의 생태계 복원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예로 마련된 것이다. 옥상에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대체 에너지를 마련할 수 있다.

**질문(법승):**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민들의 의식과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박원순 시장:** 얼마 전 청계천에 마차를 중단시켰다. 마차가 관광 사업은 될

위험 부담 큰 원전 증가보다

생활 속 절약 실천이 더 '중요'

불교가 환경문제 해결 '열쇠'

발우공양 등 실천덕목 필요

수 있지만 말에게 있어서는 잔인한 행위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에 환경의 날을 맞아 상동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 대상을 받았다. 도서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녹색연합과 함께 환경공부를 하다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시작은 늦지만 금방 달궈지는 속성이 있으니 잘 될 것이라 믿는다.

**질문(법승):** 사실 서민들보다는 부자나 기업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대책은 없나?

**박원순 시장:**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역은 건물과 수송 분야다. 대형 건물들이 생태적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처음부터 창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환풍이 잘 되면 선풍기 없이도 선풍기 효과를 낼 수 있다. 10년전 런던 생테주거단지 베드제드를 다녀왔다. 효율적 에너지 활용이 너무나



박원순 서울시장 6월 5일 불교생명윤리협회가 주최한 ‘탈핵과 에너지절약’에서 패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도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런 단지를 조성해 외국 사람들이 관광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과 걷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웬만한 유럽 국가도 자전거 사용이 20%를 차지한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면 자전거 공방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걸어 다니면 동네 상권도 산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를 뚫어달라는 요구가 많다. 이러한 대기업의 자동차 회사만 좋은 거다. 터널 하나 뚫는데 5천억 든다. 이것이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질문(법승):**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박원순 시장:**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이 도입해야 한다. 지금도 이미 CO2를 줄이는 양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마일리지를 물건 등으로 보상 받아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질문(법승):** 불교계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박원순 시장:** 불교에서는 깨미 한 마리 살생하지 말라고 한다. 에너지 절약은 불교의 본질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일 중 하나다.

땀날 가꾸기, 전기 절약, 지렁이 퇴비 등 불자가 실천해야 할 10가지 정도의 원칙을 세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발우공양은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에 있어 훌륭한 실천덕목이 될 수 있다. 대중들이 모여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크게 에너지 절약이 될 것이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 社說

### 쇄신, 사부대중 실천만이 가능

조계종이 6월 7일 제1차 쇄신계획을 내놨다. 5월 한국불교를 뒤흔든 도박 파문과 승품실추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모든 방안들로 채워졌다.

△재정 투명화 △공명선거 실현 △승단 청정성 회복 등 세 가지로 압축되는 이번 쇄신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찰예산 회계법’이다. 스님은 수행과 교화, 관리만 하고 재가자가 사찰 운영과 실행을 담당하는 합리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회계전문가 감사,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지출 예산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까지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정문종무원 양성 △사찰재정 공개 △사찰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다. 종단, 사찰운영에 있어서 사부대중이 공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선거공영제 도입, 총무원장 직선제 논의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향 설정은 짚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쇄신계획의 실현이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의 아단법석에서도 대중들은 실천을 강조했다. 대중들이 우려하고 불신하는 점도 기존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이었다.

쇄신 관계법안들의 입법에 있어서도 중앙총회의 협조가 관건이다.

이제는 이해관계가 아닌 공심을 가진 중도로서 전 사부대중이 쇄신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은 모든 중도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이다. 그것이 실추된 승풍과 한국불교 위상을 되살리는 일이고, 불조(佛祖)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편이다.

## 사랑의교회 건축 즉각 중단하라

특혜의혹을 받은 사랑의교회가 최근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공공용지 불법 점용 등의 문제로 교회 신축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했다면서 강력 반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감사 결과 불법적인 행정조치에 따른 위법이 드러났음에도 서초구는 공사 강행 의지를 밝혀 지자체의 행정편향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서초구가 서울시에 맞서는 이유는 교회 도로점용신청 허가 당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등에 의뢰한 결과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6월 1일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공공도로 지하를 특정 교회가 점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준 행위는 명백한 특혜라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주민 감사 청구를 주도한 황일근 서초구 의원은 4일 “교회가 당초 지하실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신청 했지만, 실질 설계상으로 보면 거기에 예배당이 포함돼 있었다”고 불법 설계변경을 폭로하며 공사 중지를 주장했다.

결국 사랑의교회 신축 논란은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초구는 특혜 시비와 자칫 종교 편향 시비로 치달을 수 있는 사랑의교회 공사를 당장 중지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시설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 시설이나 공공 시설이 아니므로 구청장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서울시의 결론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말처럼 종교간 갈등으로 변질 우려가 다분히 많은 것도 또 다른 이유다.

<b>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b>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사총괄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팀	www.hyunbulnews.com
		쇼핑몰	www.hyunbulshop.com
<b>현대불교</b>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b>지사안내</b>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실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요해 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들을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신제품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팔꿈치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통증**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꿰뚫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글로벌케어

아편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 나뭇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하실수록 유행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사용해보는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 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성지 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